

《그리스 문명의 탄생》

총서(叢書), 공(功)도 과(過)도 가려진 책의 수플



《그리스 문명의 탄생》
(시공디스커버리총서 005)
피에르 레베크 지음 | 최경란 옮김 |
시공사 | 176쪽 |
값 7,000원

별로 화려한 조명을 받지 않고 등장해서도, 끊이지 않고 오랫동안 여러 쉐(刷)를 거듭하는 책들이 있다. 대개는 작은 판형의 시리즈로 발간되는 총서들이다. 옛날 거의 필독서 목록에 해당되는 것을 제공하던 문학 총서들은 이제 힘을 많이 잃었고, 요즘은 그림 많이 들어간 ‘비주얼’ 한 작은 책들이 상당히 나가는 눈치다. 이런 총서들의 목록에는 특이한 주제를 다룬 것들이 꽤 들어 있어서, 독학으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이들에게 좋은 출발점이 된다. 사실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의 ‘업무분담’은 상당히 편중된 것이어서, 한쪽에서는 고급인력이 일거리를 얻지 못해 좌절하는 한편, 이미 대학에 자리 잡은 전임 교수들에게는 과중한 만큼 일이 밀려들어 학생들을 지도할 시간을 내기 힘들 정도이고,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 알아서 관심 있는 분야의 참고문헌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특이한 주제라면 총서 중 한 권이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내 학생 중 하나는 총서에서 얻은 지식들을 바탕으로 논문 줄기를 잡았는데, 그런 책은 쉬운 개설서에 불과하니 참고문헌 목록에 넣기도 곤란해서 어찌야 할지 고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오늘은 그런 책 중 하나를 살펴보자.

(원문 대조에는, 불어판 원본을 구할 수 없어서, Anthony Zielonka라는 이가 옮긴 영어판, Pierre Leveque, The Birth of Greece, New York 1994를 이용하였으나, 내용이 너무 달라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영어판과 우리말판 둘 다 Gallimard 출판사의 1990년판을 이용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마도 현지 실정에 맞게 조금씩 내용을 고친 모양이다.)



글_강대진 서양고전학자

●이 글을 쓴 강대진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서양고전학 전공과정에서 플라톤의 《향연》 연구로 석사, 같은 과정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저서로는 《잔혹한 책읽기》, 《신화와 영화》, 역서로 《아폴로도로스 신화집》이 있다.

너무나 유명한 이 총서 전체를 따로 평가할 필요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사진과 그림이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설명도 잘 되어 있어서 보기 편하고 얻을 것도 많은 체제다.

저자는 청동기 시대에서 얘기를 시작하여, 희랍세계의 지리적 확장을 여러 영웅들의 이야기와 연관시켜 설명한다. 그 중 하나가 황금양털 가죽을 얻으러 흑해 동쪽까지 갔던 이아손의 모험이다. “그는 메테아 공주의 가슴에 사랑을 불러일으켜 공주의 도움으로 황금양털을 지키는 용의 이빨에서 생겨난 군사들을 물리치고 목적을 달성한다.”(36~7쪽) 이 이야기에는 용이 나오는 대목이 두 번 있는데, 위의 인용문에서 두 가지가 하나로 섞여버렸다. 제대로 하자면, 이아손은 ‘용 이빨에서 생겨난 군사를 물리치고, 황금양털을 지키던 용을 잠재운 후’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그런데 위의 과제에 사용된 용 이빨은, 보통 테바이 건립 영웅인 카드모스가 죽인 용

에게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카드모스를 그린 그림도 같은 쪽에 나오는데, 그림 설명이 엉뚱하게 되어 있다. “아래 도자기에는 샘 앞에서 있는 아킬레우스의 모습이 그려져” (37쪽) 있단다. 이 총서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책 뒤에 그림자료 전체에 대한 정보가 다시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아도, 이 그림은 “샘 앞에서 트로일루스를 감시하는 아킬레우스” (170쪽)라고 소개되어 있다. 영어판에도 똑같이 잘못된 설명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불어판이 그림을 잘못 넣었거나, 아니면 새로운 판을 내면서 그림만 바꾸고 설명은 그대로 둔 모양이다. 어쨌든 지금 있는 그림은 ‘샘가에서 용을 죽이는 카드모스’이다.

희랍과 관련된 용어 중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몇 있는데, 이 책이 채택하고 있는 “헬레네 세계” (47쪽 등)란 말도 그 중 하나이다. 이것은 그냥 ‘희랍 세계’거나, 이른바 표준적 표기법을 따르더라도 ‘그리스 세계’가 될 말이다. ‘헬레네(Helene, 영어로는 Helen)’는 트로이아 전쟁의 발단이 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이다. 그밖에 혼동하기 쉬운 이름으로, 희랍인들의 조상이 된 헬렌(Hellen, 여기서 hellenic이란 말이 나왔다), 황금양을 타고 하늘을 날다가 바다로 떨어져 죽었다는 소녀 헬레(Helle)가 있다.

우리나라 역자들이 잘 틀리는 것 또 하나. 희랍의 신전들은 여러 도시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화해의 장소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중 특히 “올림포스와 델포이 신전은” (69쪽)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림포스는 신들의 거처가 있는 것으로 믿어지던 희랍 북부의 산이고, 신전으로 유명한 곳은 펠로폰네소스 북서부의 도시인 ‘올림피아’이다. 이 두 장소를 가리키는 형용사(Olympian)가 같은 철자이기 때문에 역자들은 조심해야 한다. 신에 대한 구절에 쓰였으면 ‘올림포스의’이고, 신전이나 도시에 대해서 쓰였으면 ‘올림피아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희랍인의 식민활동에 대한 부분에서, “트라키아 지방과 프로폰티스 지방 그리고 풍 지방의 식민사업” (79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풍 지방”은 ‘폰토스(Pontos) 지역’이라고 해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 터키가 자리 잡은 소아시아 반도 북쪽의 흑해 연안을 가리키는 말인데, 불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윈 고전어 낱말의 어미를 생략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말았다.

희랍 도시국가들의 세련된 문화는 희랍반도 북쪽에서 거친 문화를 가진 마케도니아가 밀고 내려오자 빛을 잃게 되는데, 새로운 권력자들은 신성모독도 서슴치 않아서,

“애꾸눈 안티고네왕의 아들 데메트리오스 폴리오르세트는 판테온 신전에 할렘을 설치했다” (126쪽)고 한다. 하지만 “안티고네”는 여자 이름으로, 이 이름을 가진 가장 유명한 인물은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의 주인공이다. ‘대신 태어남’이라고 풀 수 있는 이 이름은 어미를 변화시켜 남성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안티고노스’가 된다. 이 이름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나서 여러 조각으로 나뉜 그의 제국 중 원래의 희랍 지역을 차지한 왕가로서 그 첫 두 사람이 지금 여기 소개된 것이다. “폴리오르세트”도 너무 불어식으로 적었다. ‘폴리오르케테스(Poliorketes, 도시를 포위한 자)’로 적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여기 “판테온”이라고 소개된 신전은 ‘파르테논’이다. (134, 138쪽에도 파르테논 그림 옆에 “판테온”이라고 설명이 붙어 있다.) 헬레니즘기 이전에는 모든 신을 함께 모시는 제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르테논(Parthenon)은 처녀신(parthenos) 아테네를 모신 신전이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이 책에 아름다운 도판으로 소개된 조각 중 하나에는 “망루에 선 아폴론” (130쪽)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 대부분의 독자께서 본 적이 있을 텐데, 나체의 아름다운 청년이 막 활시위를 놓은 모습(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보통 ‘벨베데레의 아폴론’이라고들 부르며, 원래 ‘전망이 좋다’는 뜻의 ‘벨베데레(Belvedere)’는 15세기 말에 교황 인노센트 7세를 위해 지어진 저택을 가리키던 말이다.

‘할렘’은 보통 뉴욕의 한 구역을 가리키는 말(Harlem)이니, 왕의 처첩이 머무는 장소를 뜻하고자 한다면 ‘하렘(harem)’으로 적는 것이 좋겠다.

앞에서도 불어식 표기가 어미 생략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예를 들었는데, 디오닉소스 제의와 관련해서 그런 것이 또 나온다. “처음으로 제물을 바친 여인은 바로 판테의 어머니였다.” (160쪽) 여기서 “판테”는, 디오닉소스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벌을 받아 죽음을 당한 테바이 왕, ‘펜테우스’를 잘못 적은 것이다. 그는 여장(女裝)을 하고서 디오닉소스 추종자들을 염탐하다가, 종교적 광기에 사로잡힌 자기 어머니와 이모들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박코스의 여신도들>이 그 사건을 다루고 있다.

앞에서 총서들의 숨은 공헌을 소개했지만, 사실 이런 책은 큰 주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실(過失) 역시 숨겨지기 마련이다. 책들의 숲(叢書)이 너무 깊어서일까? 공은 인정하되 잘못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